

# 2009년 대입전형업무 주요 추진 사항

김규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입학전형지원실장

## 1. 들어가는 말

작년 1월 대입3단계 자율화 방안이 발표되고, 6월 고등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대입업무가 대교협에 이관됨에 따라 대입전형업무는 오랫동안의 정부 간섭에서 벗어나 대학이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60년대 초반, 일부 대학의 부정입학사태가 사회문제화되면서, 대입전형에 정부가 개입하게 된 이후 근 반세기에 걸쳐 정부 주도적으로 진행되어와 대입 자율화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작년 8월 '2010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이 대학 간 자율적 협의를 거쳐 자연스럽게 수립되었으며, 2009학년도 대입전형업무도 큰 문제없이 원만하게 추진되었다.

금년 들어 '201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수립을 위한 여러 절차적 과정(T/F팀 구성 및 연구, 세미나 개최, 설문조사 실시, 실무위원회 및 전형위원회 심의, 공청회 개최 등)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와 작년보

다 2개월 앞당긴 6월 말경 기본사항이 수립될 예정으로 있다. 이와 함께 대입전형이 초·중등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대입전형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대학 총장과 교과부의 핵심 정책결정권자 40여 명이 5시간에 걸친 마라톤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으며, 대입전형의 선진화를 위한 전국 대학 총장들의 공동선언도 발표되었다.

특히 금년 3월, 주요 대학들이 2010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입학사정관 전형을 확대하겠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입학사정관 전형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공정하면서도 신뢰롭게 진행되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어, 4월 이후 입학사정관 전형과 관련한 주요 사업들이 바쁘게 추진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금년 들어와 중요하게 추진되어온 대입전형업무를 진행과정과 내용 중심으로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 2. '201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의 수립

대입업무가 정부에서 대교협으로 이관됨에 있어 가장 핵심 되는 것이 바로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수립·발표하는 것이다.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은 개별 대학들이 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본 지침이 되고, 준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으로 대학입학전형 위원회는 지난해 9월 2011학년도 기본사항 수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관련 사항에 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게 하였고, 이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금년 3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전국 대학의 입학처장 및 탐장과 고등학교 진학상담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기초로 대교협 사무처는 「201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초안을 작성하여 4월에 입학전형실무위원회의 논의와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적인 협의·조정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201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시안)은 5월 22일 공청회를 통해 다시 한 번 의견 수렴을 하고, 여기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내용을 수정·보완한 후 입학전형실무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6월말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발표하게 되었다.

기본사항을 수립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입학업무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사항의 내용에 큰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되며, 기본적으로 2010학년도 기본사항과 큰 틀 속에서 내용적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원칙으로 삼았다. 대입자율화라는 정책의 큰 흐름을 반영하여야 하지만, 이것은 현재보다 한두 걸음 더 나아가는 정도의 변화여야 한다는 데에 대체적인 의

견의 일치를 보였다. 급격한 입시제도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의식과 함께 2011학년도 기본사항을 수립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된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흔히 '3불'로 표현되는 대입3원칙(대학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과 관련한 사항이다. 이 문제는 T/F팀의 논의 단계에서부터 가장 중요하면서도 진지하게 다뤘던 내용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안되고 토론되어졌다. 논의 결과 대입3원칙이 대입자율화와 모순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대입3원칙에 대한 국민적 정서가 일정한 상태로 자리를 잡고 있고, 이를 수정·폐지함에 따르게 될 교육 내·외적 문제점과 사회적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기존의 틀을 그대로 유지해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한 가지 대안으로 대입3원칙 금지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다양한 형태의 논술 등 대학별고사의 실시와 '교정보공시제' 등에 근거하여 고교종합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단서조항으로 함께 명시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하였지만, 자칫 대입3원칙을 흔들거나 폐지하려고 한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철회되었다.

둘째는 2009학년도 입학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나타난 문제점과 관련한 사항이다. 지난해 말에 불거진 모 대학의 수시전형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지적한 것이 있다. 그것은 어떻게 다단계로 진행되는 전형에서 1단계 전형을 15~17배수로 선발할 수 있느냐 하는 점과 모집요강에 표시된 반영비율이 실제 반영되는 비율과 어째서 차이를 보이느냐 하는 점이다. 이러한 지적이 보기에 따라서는 작은 사안이고, 대학의

자율적 결정 사항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이에서 비롯된 사회적 파장이 컸고, 수험당사자와 일반 국민들의 상식적인 기대에 어긋날 때 대입전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된다는 점에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방지 대책이 기본사항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본사항이 입학업무의 안정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준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입학업무가 실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기본사항을 수립함에 있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으로 보인다.

셋째는 2007년에 시범 도입되어 2009학년도부터 전형이 시작되고, 2010학년도 전형에서 대폭 확대될 예정으로 있는 입학사정관 전형과 관련한 사항이다. 내신성적과 수능성적과 같이 객관화된 점수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이 갖고 있는 다양한 전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의 능력과 인성, 창의성, 잠재력, 성장가능성 등을 평가하고자 하는 입학사정관 전형이 보다 확대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내용이 기본사항에 명기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그 근거 조항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기본사항에는 입학사정관 전형과 함께 '선진형 대입 전형'이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미국의 주요 대학들이 대입전형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입학사정관을 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의 설립이념이나 모집단위의 특성에 비추어 본 적절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중등교육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충실한 이행 여부와 대학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잠재능력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이들 대학의 학생선발방식은 우리나라의 현 점수위주의 선발방식을 개선해나갈

수 있는 긍정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변경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대입전형의 선진화 관련 근거 조항의 신설

중등교육의 정상화와 공교육활성화를 위해 현행 점수중심의 학생선발방식에서 벗어나 성적은 물론 학생이 갖고 있는 다양한 전형자료를 분석하여 학생의 인성과 창의성, 잠재능력,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하는 새로운 학생선발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그동안 많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기본사항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학생선발방식을 '선진형 대입전형'이라고 명명하면서, 이를 '대학입학전형의 기본 방향과 원칙'란에 새롭게 신설함으로 향후 이 제도의 발전이나 정착을 위한 근거로 삼고자 하였다.

### ② 합격자 발표 및 등록과 관련한 사항의 명료화

개별대학이 입학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수험생과 많이 부딪치는 문제가 바로 합격자 발표 및 등록과 관련한 사항이다. 복수지원이 허용되는 현행 입학전형하에서 합격 및 등록과 관련하여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러한 위반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항이 보다 명확하게 표기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수정되어 변경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예비합격 후보자 등에 대한 연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의 구체적인 예 적시
- 대학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수험생에 대한 구체적인 예 적시
- '등록'의 의미를 (문서등록 외에) '등록확인예치금'을 납부한 상태도 포함된다는 점을 적시



- 신입생 모집요강에 이중등록금지 위반자의 입학취소 조치를 반드시 명기하도록 함.
- 추가합격자를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등록기간 전에 사전예비등록을 받는 것을 금지함
- 정시모집의 경우 미등록충원 기간 내에 미등록 충원합격자를 대상으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을 적시
- 수시모집 대학에 합격한 자에 '예비 합격 후보자 중 충원합격 통지시 등록의사를 밝힌 자'도 포함한다는 내용을 적시
- 대학별 모집요강에 이중등록 및 등록금 환불과 관련한 사항을 분명히 하기 위해 다음 2가지 사항을 공통적으로 명기하도록 함
  - ㉞ 정시모집 합격자가 추가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추가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해당 대학 등록포기 의사를 전달하여야 함
  - ㉟ 합격취소 및 등록금 환불 요청서는 입학관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③ 입학사정관 전형의 공정성 확보 관련 내용 추가  
 2010학년도 기본사항에서는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하여 도입을 권장한다는 내용만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금년 들어와 각 대학들이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확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단순히 도입 권장이 아니라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공정성과 타당성, 신뢰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2011학년도 기본사항에는 입학사정관제가 도입·실시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학은 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대학입학전형계획에 사전 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기하였다.

#### ④ 선발 사정 방법과 관련한 조항의 추가 신설

학생선발 방식은 원칙적으로 대학 자율로 결정할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사항에 이에 대한 조항을 추가로 신설하게 된 것은 대학 자율이 일반 수험생과 학부모가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선을 넘어서는 경우 대학입학전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09학년도에 문제가 된 점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2가지 조항을 신설하였다.

- ㉞ 다단계전형의 경우 1단계의 선발인원은 적정한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함
- ㉟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은 가능한 실제 반영되는 비율을 제시하도록 함

#### 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과 관련한 자격기준 설정의 명료화

정원 외로 입학정원의 4% 이내로 선발할 수 있게 되는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의 경우 기존의 기본사항에는 그 자격을 대학이 자율 결정하고 이를 모집요강에 명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행정개편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농어촌대상 지역이 달라지고, 신활력지역 등 유사 농어촌지역의 포함 여부와 관련한 안내 공문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실지로 농어촌지역에 해당하는 학교와 학생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겨났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각 대학이 자율로 정하게 되어 있는 자격 기준을 일률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특별전형의 해

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새롭게 기준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농어촌에 해당하는 지역(읍·면 지역)에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의 장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근거를 모집요강에 기재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명기하였다.

### 3. 공교육활성화 및 대입전형 선진화를 위한 공동선언 / 워크숍

대입자율화 추진과 함께 그동안 끊임없이 논의되었던 사항은 ‘어떻게 하면 현행 점수위주의 학생선발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특성과 잠재능력을 고려한 방식으로 대학의 학생선발방식을 전환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었다. 학생을 시험성적위주로 선발하는 한 점수를 올리기 위한 입시위주의 교육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입시위주 교육현실에서 초·중·등 교육이 창의성과 인성,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개발시켜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기는 어렵고, 대학도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해나갈 창의적이고 잠재능력이 풍부한 학생을 선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대교협은 올해 들어와 3지 중요한 행사를 추진하였다. 첫째는 공교육의 핵심주체들이 모여 공교육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항을 합의한 것이며, 둘째는 대입 정책의 수립권을 갖는 정부와 대학총장들이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토론회를 가진 것이고, 셋째는 학생선발방식을 점수위주에서 잠재력 위주로 변화시켜나가는 대학의 의지를 모아 국민들에게 발표한 것이다. 각각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선언’, ‘대교협-교과부 워크숍’, ‘대입전형의 선진화를 위한 공동선언’으

로 발표되었으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선언’

공동선언은 공교육의 핵심주체인 대교협-한국교총-교과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들이 모여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9개 항에 공동 합의·서명함으로써 마련되었고, 발표는 2월 27일 오전 9시 30분 기자회견을 통해 이루어졌다.

공동선언문에서 4개 기관 및 단체장은 “우리나라의 교육은 획일적이고 낡은 틀에 묶여 다양성과 창의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심화되는 입시위주의 환경과 사교육비는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경제위기로 인해 국민의 삶이 어려워지고, 청년실업이 증가하는 등 국가적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전제한 뒤, “교육의 주체들이 범사회적 협약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적인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고 공동 선언에 이르게 된 취지와 배경을 밝히고 있다.

이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9개 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 간의 연계 강화로 공교육 신뢰회복,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②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현장의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을 확대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③ 전문성과 열정을 가진 교원이 우대받는 교직 풍토를 조성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공동으로 노력한다. ④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에 적극 참여하고,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조성하는데 공동으로 노력한다. ⑤ 농산어촌, 저소득층, 다

문화가정,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 등 소외된 지역과 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확충에 공동으로 노력한다. ⑥ U-러닝 교육환경과 친환경 녹색학교를 조성하는 등 학생과 교원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 ⑦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성을 바탕으로 획일적인 시험성적 위주의 학생선발에서 벗어나 학생의 잠재력과 창의성을 기초로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제의 안착 등 선진형 대학입학제도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사교육 부담이 경감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 ⑧ 대학의 교육역량 및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교육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에 협력함으로써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⑨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 나. 대교협-교과부 워크숍

워크숍은 4월 3일(금) 오후 2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5시간에 걸친 마라톤 토론회로 진행되었다. 대교협에서는 회장인 손병두 서강대 총장을 비롯하여 대학 총장과 대교협 사무총장 등 24명이 참석하였고, 정부에서는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비롯하여 차관, 실·국장 등 14명이 참석하였다. 토론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4명의 발제가 있었으며, 이후 대교협 회장의 진행으로 대입전형의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워크숍을 통해 합의된 5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현행 시험성적 위주의 대입전형을 개선하여 학생들의 성적은 물론 창의성, 잠재능력, 지도성, 발전가능성, 인성 등을 함께 참고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선진형 대입전

형이야말로 초중등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사교육 의존을 감소시키는 대안임을 확인하였다. ② 현 정부 교육정책의 기본골격인 자율성과 다양성이 보다 잘 구현될 수 있는 입학전형제도를 연구 개발하고, 동시에 교육과정 개선시 고등학교 교과목을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학생들이 너무 많은 교육 부담에서 벗어나 인성교육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다. ③ 이번 정부에서 강화된 입학사정관제가 선진형 대입제도를 실현하고, 성적위주의 교육현실을 바꾸어나갈 수 있는 중요한 정책 대안 중 하나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였으며, 사회가 신뢰하는 입학사정관제가 점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 대학 및 사회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④ 입학사정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전형의 공정성·신뢰성·타당성을 확보하는 것과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였으며, 고등학교와 대학, 그리고 정부 간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이를 위한 단계적 세부 일정을 곧 마련하기로 하였다. ⑤ 향후 대교협은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되고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4월 중에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만들고, 5월중 선진형 대입전형 확산을 위한 대학 간 공동선언도 채택·발표할 예정이다.

#### 다. '대입전형의 선진화를 위한 공동선언'

이 공동선언은 앞에서 지정한 2월 27일 발표된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 선언'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역할을 추진해나가고, 대학의 학생선발방식을 점수 위주에서 잠재력과 성장가능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꾸어나감으로써 중등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공동 선언은 대학 총장 및 입학처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회장단의 검토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며, 전문과 8개 합의사항, 그리고 정부·고등학교·사회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대학 총장을 대표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손병두 회장, 서거석 부회장, 이배용 부회장, 이희연 부회장)이 6월 9일(화) 오전 10:00시에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였다.

대학 총장들이 합의한 8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고교-대학 간 협력체제를 강화시켜나가겠다. ② 고교교육활동에 대한 기록이 충실하게 작성되고 전형자료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고등학교와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 ③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잠재력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이들에게 수준 높은 대학교육을 제공하여 학생이 원하는 분야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④ 대입전형의 선진화를 위한 핵심 정책 수단인 입학사정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⑤ 입학사정관 전형의 공정성·신뢰성·타당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 ⑥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연수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 나가겠다. ⑦ 대입전형의 선진화 방안에 대해 수험생 및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회 및 상담활동을 강화시켜 나가겠다. ⑧ 대입전형의 선진화를 위한 대학의 노력에 대학과 고등학교, 사회가 적극 동참해주기를 요청한다.

#### 4. 입학사정관 전형의 확대

입학사정관제는 2004년 10월 「2008학년도 이후 대

학입학제도 개선안 발표(04.10.28)」시 대입전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그 도입의 필요성이 처음 언급되었다. 이어 「2008학년도 대입전형기본계획」부터 입학사정관제 운영을 권장한다는 내용이 반영되고, 2007년 8월 시범대학 10개교를 선정하여 예산을 지원하였다. 2008년에는 40개 대학으로 지원대상학교가 늘어났으며, 2009학년도 대입전형에서 4,401명이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되었다.

금년 들어와 대입전형을 점수위주에서 잠재력, 성장가능성 등을 중시여기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을 반영하여 주요 대학들이 앞다투어 2010학년도부터 입학사정관 전형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대교협은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개최하여(4월 28일) 입학사정관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논의를 토대로 대교협은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입학사정관의 개념과 역할,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입학사정관 전형을 위한 공통 전형절차 및 전형요소, 대학 및 대교협의 활동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공통전형 절차로는 4단계를 제시하였고(표 1), 공통 전형요소는 3개의 요소와 각 요소별 내용을 제시하였다(표 2).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시로 제시한 것으로 각 대학은 공통 전형절차 및 요소를 바탕으로 건학이념 등 대학 특성과 모집단위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표 1. 공통 전형절차 (예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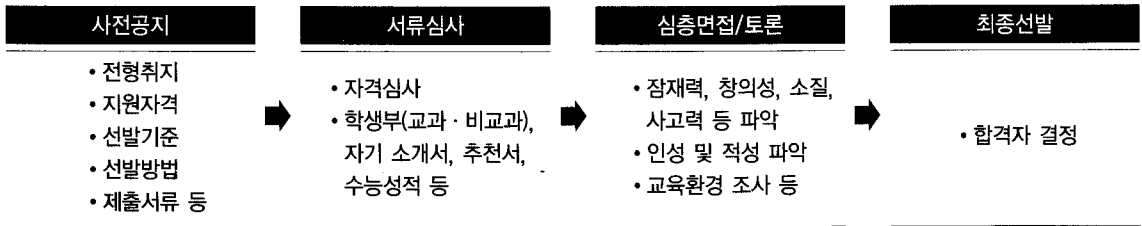


표 2. 공통 전형요소

요소	주요 내용
학생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지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력 : 이해력, 분석력, 논리적 사고력, 창의력, 문제해결력 등</li> <li>- 적성 및 역량 : 관련분야에 대한 소질, 학업적성, 대학 또는 학과 수학 능력, 현장경험 등</li> <li>- 표현력 : 의사소통능력(토론/설득력) 등</li> </ul> </li> <li>• 정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성 : 자신감, 적극성, 리더십, 책임감, 목표지향성, 사회봉사성, 자기조절능력, 도덕성, 사회성 등</li> <li>- 흥미 : 지적호기심, 열정, 학습동기 등</li> <li>- 태도 : 가치관, 학습태도 등</li> </ul> </li> <li>• 잠재력, 미래 성장가능성, 전공 적응 가능성 등</li> </ul>
대학 및 모집전형과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학이념 및 학과 특성에 부합하는 학생인지 여부</li> <li>• 리더십전형, 사회적 배려전형 등 모집전형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li> </ul>
교육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환경, 교육여건,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특성 등</li> </ul>

이러한 공통 전형절차 및 전형요소와 함께 각 대학은 대학의 인재상, 전형유형의 목적 및 중점 평가요소, 전형절차와 전형요소, 선발기준 등 입학사정관 전형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학별 전형계획, 모집요강 및 홍보자료 등에 제시·준수하며,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 감사위원회' 등을 통한 자체 통제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또한, 대학별로 '입학사정관 윤리규정 또는 윤리강령'을 제정·준수하며, '다수의 평가자에 의한 다

단계 평가'라는 전형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대교협이 담당해야 할 역할로는 각 대학들로 하여금 입학사정관 전형과 관련한 대학의 전형절차, 전형요소, 선발방법 등을 사전 발표하도록 하게 하는 것과 입학사정관 홈페이지를 통해 입학사정관제 개요, 대학별 전형계획, 입학전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대학별 홍보자료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대학 간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록 하는 것, 그리고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를 지속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입학사정관에 대한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지원을 받는 대학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입학사정관제 운영 평가를 실시하고, 희망대학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입학사정관제 운영 컨설팅을 실시하며, 대입전형에 관련된 전문직 윤리에 대한 기본 틀을 마련하고 이를 대학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거론되었다.

대입전형의 또 다른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고등학교는 교육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반영하여 단위학교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소질과 능력 그리고 적성 및 희망에 따라서 선택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장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학생들의 교과활동,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에 관한 자료를 성실히 수집하고 이를 충실하게 기술하여, 공정하게 학생을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중요한 역할로 지적하였다.

## 4. 맺는 말

대입전형업무는 관련 주체들이 많고, 국민적 관심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면서도 꼼꼼한 준비과정을 필요로 한다. 전형과정에서 조그마한 문제가 발생하여도 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 대입자율화를 걱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었지만, 대입업무가 대교협으로 이관된 이후 1년간 진행되어 온 대입전형 과정을 본다면 큰 문제없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왔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금년 들어와 추진되었던 2011학년도 기본사항의 수립 과정과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입전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한 토론회 개최 및 공동선언 발표는 예전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절차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대입전형 역사상 획기적인 제도 중 하나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입학사정관제의 본격 실시에 맞춰 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과정을 마련한 것도 의미 있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입학사정관제를 비롯하여 대입전형을 선진형으로 바꾸어나가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궁극적으로는 대입자율화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대입전형을 안정적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한 중·장기적인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고, 이러한 중·장기적 계획화에 대입전형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 필자소견

#### 김규환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입학전형지원실장으로 재직 중이다.